

스페인어 수동 구문 파생과정에 관한 연구*

서소영
(전북대학교)

Seo, So Young. (2020). Studies on passive constructions in Spanish.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8(2), 43-56. The Spanish language has three forms of passive constructions. Being one way of using the passive voice in Spanish, the passive SE constructions are used with nouns conjugated in the third-person singular and third-person plural forms. In passive construction with SER, ESTAR, the object or person receiving the action of the verb is followed by a form of the SER/ ESTAR and a past participle. Moreover, when the agent is stated, the preposition POR follows it. Throughout this paper, we will argue that the passive constructions with SE correspond to the passive with SER and the passive with ESTAR. These passive constructions contain the aspectual features. However, the SE is different from the SER and the ESTAR in the following point: POR-agent does not appear in the constructions with SE but shows up in the passive with SER and the ESTAR. Hence, without a doubt, POR-agent plays a crucial role in distinguishing the SE from the SER and the ESTAR. We will suggest that the SE is derived from the Lexical Syntax in sense of Harley (1996). The passive SE is located at the EVENT head in Lexical Syntax. From this point of view, the passive SE can be distinguished from the impersonal SE.

주제어(Key Words): 세 개의 수동 형태(three forms of passive constructions), 수동 se(the passive SE), 수동 ser 구문(the passive with SER), 수동 estar 구문(the passive with ESTAR), 상적 자질 (the aspectual features), EVENT 핵 (the EVENT head), 비인칭 SE(the impersonal SE).

1. 머리말

스페인어를 제 2 외국어로 습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접어 se 용법은 상당히 난해한 구문으로 인지된다. 특히, 수동 접어 se와 비인칭 se는 행위자를 결여함으로써 의미적으로 유사하게 사용되므로 언급한 두 구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스페인어에는 ser+과거분사, estar+과거분사 구조와 같은 다른 일반 수동 구문이 존재하지만 현대 스페인어에서는 수동 접어 se 용법의 사용빈도수가 높아지고 있다 (Brown, 1930, Monge, 1955).

본 연구는 이러한 스페인어 수동 접어 se의 의미적, 구문적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재분석하는 데 연구 목적을 둔다.

먼저 스페인어 수동 접어 se 구문의 구문적 특징을 살펴보고 이에 관한 기존 이론 및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수동 접어 se의 의미적, 통사적 분석을 시도하기 위해 비인칭 se 구문과 비교,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다른 일반 수동 구문인 ser+과거분사, estar+과거분사 구문과 연계되는 의미적 특징을 살펴보고 수동 접어 se 구문에 관한 재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스페인어 수동 접어 se에 관한 분석

2.1. 스페인어 수동 접어 se 구문의 통사적 특징

Hernández Alonso (1979)가 지적하고 있듯이, 라틴어는 형태적으로 유일한 수동 활용형 -or을 사용해 수동 구문을 표현했다. 즉, 구체적인 수동 활용형을 수반하는 수동 구문이 존재했다. 그러나 스페인어를 비롯한 로망스어들에서 수동태

*이 논문은 2019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는 ser+과거분사 형태를 통해 사용되었다. 즉, 스페인어는 라틴어와 같은 특정한 수동 형태소를 결합하며 대신 ser+과거분사와 같은 보어문 형태를 활용해서 수동 구문을 표현했다. 언어사를 따라 Monge (1955)가 지적하고 있듯이, 중세시대에 접어들어 수동 접어 se를 통해 수동 구문을 표현하게 되었다. 즉, 16세기 이전 중세 로망스어에서는 ser+과거분사가 수동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다. 언어사에서 수동 접어 se 구문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ser+과거분사 구문의 사용 빈도수는 줄어들게 되었다. 이와 같이 수동 구문에서 사용되는 접어 se는 주로 행위자를 결합함으로써 비인칭 se 구문과 연계되어 설명되어 왔다 (Bosque, 1987, Mendikoetxea, 1990).

- (1) a. Se observa cambios en la economía. (비인칭 구문)
 ‘SE observes(3sg) changes in the economy.’
- b. Se observan cambios en la economía. (수동 구문)
 ‘SE observe(3pl) changes in the economy.’
 (Mendikoetxea, 1990, p.308)

위 예문에서 수동 구문이나 비인칭 구문은 모두 특정하지 않은 주어를 함축함으로써 의미적으로 상당히 유사하다. 즉, 접어 se는 특정하지 않은 주어, 항상 [+인간 (human)] 주어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 된다 (Otero 1985, Campos 1989). Otero (1985)에 따르면, 이러한 해석은 영어의 ‘one’ 혹은 ‘they’ 혹은 일반적 해석을 지닌 행위자 결합 수동 구문 (agentless passives)에 가깝다. 여기서 수동 구문과 비인칭 구문간의 차이는 동사에 후치해서 나타나는 명사구와 동사간의 수 일치에 근거한다. 즉, 전통 문법에서부터 후치 명사구와 수 일치를 이루는 것은 수동 구문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인칭 구문으로 인지되어왔다 (Gili Gaya, 1973).

이러한 수동, 비인칭 접어 se 구문은 다음 중간태 구문들로부터 의미적으로 구별된다 (Mendikoetxea, 1990). 중간태 구문에서는 행위자가 완전히 배제된다. 즉, 특정하지 않은 주어가 생략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2) a. La puerta se abrió (por sí sola).
 ‘The door SE opened(3sg) (by itself).’
- b. El hielo se fundió.
 ‘The ice SE melted(3sg).’
 (Mendikoetxea, 1990, p.308)

예문 (2)에서는 함축적 주어가 완전히 배제됨으로써 수동 접어 se 구문이나 비인칭 se 구문으로부터 구별된다. 즉, 중간태 구문에서는 문법 주어가 문 뒤에 외현적으로 나타남으로써 비인칭 se, 수동 se 구문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2.2. 스페인어 수동 접어 se 구문에 관한 기존 이론 및 문제점

Alarcos Llorach (1970)에 따르면 스페인어에는 고유한 수동태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 ser+과거분사, estar+과거분사는 그에 상응하는 계사동사 표현과 병합되며 수동 접어 se는 재귀 대명사와 병합된다. 이미 언급한 바대로, 라틴어에서는 명백한 수동 표시자 -or이 있다. 즉 라틴어에서는 능동태에 수동 표시자를 도입함으로써 수동태를 만들었다. 반대로 스페인어에는 수동표시 형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Hernández Alonso, 1979).

수동 접어 se와 관련하여, Bosque (1987), Mendikoetxea (1999)와 같은 학자들은 언급한 접어를 수반하는 구문을 수동 구문 즉 비인칭 구문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의했다.

- (3) Se compraron unos cuantos bolígrafos.
 ‘SE bought(3pl) a few pens.’

이러한 관점 하에서 볼 때 위 예문 (3)은 수동 즉 비인칭 구문으로 정의되므로 서로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나 스페인어의 수동 접어 se 구문의 통사적 특징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기존 분석들은 문제점을 수반한다.

이미 살펴본 바대로, 어원적으로 스페인어 se는 라틴어 재귀형에서 파생된 재귀대명사였다. 이러한 문법 요소는 현대

스페인어에 이르러 재귀 대명사뿐만 아니라 수동, 비인칭과 같은 여러 다른 기능으로 구별되어 사용되고 있다.

- (4) Juan se lava las manos. (재귀용법)
 ‘Juan SE washes(3sg) the hands.’
- (5) a. Se venden las casas. (수동의미) -수동구문
 ‘SE sell(3pl) the houses.’
 b. Se (le) empuja (al niño). (능동의미)-비인칭 구문
 ‘SE (to-him(DAT)) push(3sg) (the boy).’
 c. aquí se vive/come bien. (능동의미)-비인칭 구문
 ‘Here SE live/eat(3sg) well.’
 (Pedersen, 2005, p.4)

위 예문에서 수동 접어 se 구문이 의미적으로 유사한 비인칭 se로부터 구별되는 주된 통사적 특징으로 구문 형태를 들 수 있다. 즉, Mendikoetxea(1990)에서 지적된 바대로, 수동 구문에서는, 비인칭 se 구문에서와 달리, 수동 접어 se와 동사 사이에 어떠한 요소도 허용되지 않는다. 간접 목적격 대명사 les가 비인칭 se와 동사 사이에는 들어갈 수 있는데 수동 se와 동사 사이에는 못 들어간다.¹⁾

- (6) a. SE les vende libros a los chicos.
 ‘SE to-them(DAT) sell(3sg) books to the boys.’
 b. *SE les venden libros a los chicos.
 ‘SE to-them(DAT) sell(3pl) books to the boys.’
 (Mendikoetxea, 1990, p.319)

예문 (6)에서 볼 수 있듯이, 스페인어 수동 접어 se 구문에서는 접어 se와 동사 사이에 간접 목적격 대명사와 같은 다른 요소가 유입될 수 없다. 그러나 예문 (5b), (6a)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비인칭 se 구문에서는 이러한 요소의 삽입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이러한 측면은 비인칭 se와 수동 접어 se 구문을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구문적 특징에 해당된다.²⁾

Mendikoetxea(1990)가 제시하는 다음 자료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갈리시아어 구문에서도 역시 비인칭 se (예문 7b)만이 여격 접어 les (‘to them’)를 비인칭 se와 동사 사이에 허용한다. 수동 se 구문 (예문 7c)에서는 허락되지 않는다.

- (7) a. Desde alí non SE vían as nenos.
 ‘From there not SE see(3pl) the children.’
 b. Desde alí non SE les vía.
 ‘From there not SE to-them(DAT) see(3sg).’
 c. *Desde alí non SE les vían.
 ‘From there not SE to-them(DAT) see(3pl).’
 (Mendikoetxea, 1990, p.320)

이와 같은 구문적 특징이 비인칭 se, 수동 se를 수반하는 여러 언어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점은 상당히 흥미롭다. 즉, 이러한 구문적 현상을 통해 우리는 수동 접어 se가 비인칭 se로부터 구문적으로 분명하게 구별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음 Pedersen (2005)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스페인어에서 수동 주어 위치는 동사원형에 의해 취해질 수 있지만 다른 동사 형태로 인해 문법 주어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1) 스페인어에서 간접 목적어가 예문 (6)에서와 같이 “a+명사” 형태로 나타날 때 les와 같은 간접 목적격 대명사는 이중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즉, 간접 목적어 “a+명사” 형태가 사용될 때 간접 목적격 대명사는 출현 가능하다.
 2) 이러한 현상은 스페인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불어 se-moyen 구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Guerón, 1991).

- (8) a. Se venden las casas.
 'SE sell(3pl) the houses.'
 b. *Se necesitan vender las casas.
 'SE need(3pl) sell the houses.'
 c. SE necesita vender las casas.
 'SE need(3sg) sell the houses.'
 (Pedersen, 2005, p.12)

이러한 현상은 수동 접어 se 구문에서 후치 명사구가 문법적 주어로서 동사에 수 일치하므로 일반 후치 주어 구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사에 후치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된다.³⁾

이외에도 비인칭 se 구문에서 NP가 반드시 목적격으로 격 표시된다는 점에서 두 구문 간에 차이가 드러난다 (Pedersen, 2005). 또한 다음 Pedersen (2005) 자료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수동 구문에서 참여자 (participant)는 거의 항상 '무생물 (nonhuman/inanimate)'인 반면 비인칭 구문은 '인간 (human/animate)' 참여자를 포함한다.

- (9) a. Se venden las casas.
 'SE sell(3pl) the houses.'
 b. Se buscan empleados.
 'SE need(3pl) employees.'
 (10) a. Se vende las casas.
 'SE sell(3sg) the houses.'
 b. Se busca empleados.
 'SE need(3sg) employees.'
 (11) a. ?? Se venden ellas.
 'SE sell(3pl) they.'
 b. ?? Se buscan ellos.
 'SE need(3pl) they.'
 (12) (*) Se las vende.
 'SE them(ACC) sell(3sg).'
 (Pedersen, 2005, p.20)

즉, 비인칭 se 구문에서 후치 명사구는 직접 목적어에 해당되지만 수동 접어 se 구문에서는 문법적 주어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수동 구문에서와 달리 비인칭 se 구문의 경우 사람이 직접 목적어로 올 경우 전치사 a를 수반하게 된다. 그러나 이를 대명사로 바꿀 때에는 간접 목적격 대명사 형태를 취한다. 이러한 점은 형태론, 구문론적으로 비인칭 se 구문의 경우 타동성의 감소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Maldonado, 1992). 전형적인 타동사구조와 비교해볼 때 이러한 비인칭 구조는 타동성 (transitivity)에서 좀 더 낮은 것으로 인지된다. 또한 비인칭 se 구문의 경우 함축적인 행위자 역할이 수동 se 구문에 비해 좀 더 인지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Pedersen, 2005).

- (13) Se mataba a los cristianos.
 'SE killed(3sg) the Christians.'
 (14) Se les mataba.
 'SE to-them(DAT) killed(3sg).'

3) 스페인어에서 주어는 화용론적인 측면 즉 주어가 구정보 자질을 지니는지 아니면 신정보 자질을 내포하는지에 따라 문 두에 혹은 문 뒤에 위치한다 (Vallduvi, 1990). 스페인어는 동사 변화형이 주어를 보여줌으로써 주어 생략이 가능한 pro-drop언어에 해당되지만 이러한 문법적 측면 이외에 화용론적으로 주어가 구정보 자질을 지니면 전치 주어 형태로 나타나는 반면 주어가 신정보 자질을 나타내면 동사에 후치되어 사용된다.

(Pedersen, 2005, pp.31-32)

위 예문을 통해 우리는 스페인어에서 비인칭 se는 수동 se와 의미적으로 유사해보이지만 보다 낮은 형태의 타동성 구문을 유도하며 수동 구문에 비해 내재된 행위자 역할이 좀 더 부각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자료들은 스페인어에 수동 접어 se가 고유하게 수동 구문을 유도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에 근거해서 본 연구에서는 스페인어에서 수동 접어 se 구문이 행위자를 결여함으로써 의미적으로 유사하게 해석되는 비인칭 se 구문으로부터 구별된다는 점을 가정하고자 한다.

3. 스페인어 수동 접어 se 구문에 관한 통사적 분석

수동 접어 se 구문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수동 접어 se가 비인칭 se와 연계성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동 형태인 ser+과거분사, estar+과거분사 구문과 유대관계를 지닌다는 점을 가정하고자 한다. 우리의 관점 하에서 볼 때, 수동 접어 se는 비인칭 se와 유사한 구문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사적으로 수동 접어 se가 사용되기 이전에 스페인어뿐만 아니라 다른 로망스어에서 주로 수동 구문으로 사용된 ser+과거분사 구조와 연계성을 설정한다는 점을 가정하고자 한다.

먼저 수동 접어 se의 파생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스페인 언어사적 자료를 고찰해보기로 한다. 스페인어 언어사에서 수동 접어 se는 사물의 주어에 관한 인칭화, 의인화를 유도하는 은유적, 비유적 과정을 통해 재귀 대명사 용법에서부터 파생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Richter, 1909). 이러한 본래의 의인화 의미를 상실하게 된 것은 이러한 구문이 점차적으로 수동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Brown (1930, p. 455)에 따르면 이와 같은 수동 의미는 처음에는 인칭 주어와 더불어 표현되었고 후에 무생물, 사물 주어에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문은 스페인어의 고유한 수동태 구문이라기보다는 중간태 구문에 해당된다. 즉 Monge (1955)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라틴어의 대명사 se가 중간태 의미를 지닐 때 이러한 인칭화, 의인화 구문이 형성된다. Monge에 따르면, 이러한 중간태 의미는 점차적으로 상실되고 동사원형 구문에서 처음으로 수동 의미가 등장하게 되는데 완료 동사와 동시 동작 행위 동사 특히 동사가 완료 시제를 취할 때 이러한 수동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Brown (1930)은 이와 같이 수동 접어가 발전해감에 따라 본래 스페인어에서 사용되던 수동 형태는 후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스페인어에서 재귀 대명사는 라틴어 초기 시대부터 현 스페인어에 이르기까지 천천히 그러나 계속적으로 원래 용법에서부터 다른 용법으로 확대되어 갔다고 볼 수 있다. 라틴어 역사를 따라 사물주어와 더불어 사용되었다. 이러한 용법의 확장을 통해 수동 접어 se가 파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Elvira (2000)가 제시하는 중세 자료에 따르면, 당시에 대부분의 수동 접어 se 구문은 무생물 (no personal) 주어를 수반한다. 수동 의미를 내포하는 구문의 주어는 행위자를 거의 표현하지 않는다. 즉, 구체적으로 사물, 부정사 (nada) 혹은 추상명사가 주로 쓰인다.

- (15) ...el dalli adelant que se non derribasen nada...
 ‘... advanced that SE no demolished(3pl) nothing...’
 (Elvira, 2000, p.3)

- (16) Es anno se leo en Roma primeramiente la retorica latina.
 ‘Is year SE read(3sg) in Roma first the rhetoric latin.’
 (Elvira, 2000, p.4)

또한 ‘casamiento (marriage)’와 같은 행위 혹은 결과에서 파생된 명사가 사용되었다.

- (17) Este casamiento oy se otorgue en esta cort.
 ‘This marriage SE grant(3sg) in this court.’
 (Elvira, 2000, p.3)

이러한 구문에서 문법적 주어는 의미적 목적어로 분석되므로 한정사 없이 출현했다.

- (18) a. ...nin villa nin castiello non se les pudo amparar.
 ‘y no town y no castle SE to-them(DAT) could(3sg) protect.’
 b.non se encubre bodega nin cellero.
 ‘... not SE conceal(3sg) cellar y no cellar.’
 (Elvira, 2000, p.4)

스페인어 언어사 자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접어 se는 재귀 대명사 용법에서 중간태 구문으로 확대되고 점차적으로 수동 구문을 유도하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이와 같이 수동의미를 내포하는 se 용법은 동사원형 구문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게 되는데, 이 때 동사 형태는 완료 동사와 동시 동작 행위 동사 특히 동사가 완료 시제를 취하는 경우에 해당되었다. 이러한 측면은 재귀 대명사 se가 중간태 용법을 거쳐 수동 의미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접어 se가 상적 의미 즉 event 자질과 밀접한 연계성을 설정하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문이 완료상 즉 event 자질을 내포하게 될 때 접어 se는 수동 구문을 유도하게 된다.

이러한 수동 접어 se 구문의 상적 특징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언급한 접어 se가 수동 구문을 형성하는 ser, estar 동사와 연계성을 지닌다는 점을 가정하고자 한다. 스페인어 계사구문에서 ser 동사는 일련의 계사로서 주어와 보어를 연결해주는 연계사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주로 Individual-Level 술부를 유도한다. 즉, event 자질을 결여한다.⁴⁾

- (19) a. Pilar es inteligente.
 ‘Pilar is(SER, 3sg) intelligent.’
 b. Pilar es profesora.
 ‘Pilar is(SER, 3sg) professor.’

위 예문에서 계사 ser 동사는 연계사로서 event 자질을 수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동 구문을 유도할 경우 ser 동사는 event 구문을 형성하게 된다 (Comrie, 1981, De Miguel, 2000). 즉, ser+과거분사 수동 구문은 기본적으로 완료상 즉 event를 내포하는 문에 사용되며 완료상 자질을 내포하는 동사 어휘소에 영향을 준다 (Jiménez, 2004). 이러한 수동 구조는 기본적으로 타동성 즉, 두 개 혹은 세 개 논항을 갖는 동사 어휘소에 단지 영향을 준다.

- (20) a. El huerto fue heredado por mi padre.
 ‘The garden was(SER, 3sg) inherited by my father.’
 b. *La lección fue sabida por todos.
 ‘The lesson was(SER, 3sg) known by everyone.’
 (21) a. Su aparición fue esperada con intensidad por parte de todos.
 ‘His appearance was(SER, 3sg) expected eagerly by everyone.’
 b. *El niño fue llegado.
 ‘The boy was(SER, 3sg) arrived.’
 (Jiménez, 2004, p.24)

수동 접어 se가 수반하는 event 자질은 estar 동사에서도 역시 살펴볼 수 있다. 스페인어 일반 계사 구문에서 estar 동사는 ser 동사와 달리 ‘일시적 상태’를 표현한다. 즉, 결과문을 형성하며 일반 계사 구문에서도 event 자질을 내포함으로써 Stage-Level 술부를 형성한다.

- (22) a. *Juan es cansado.
 ‘Juan is(SER, 3sg) tired.’
 b. Juan está cansado.

4) 영어의 be 동사는 스페인어에서 ser 동사와 estar 동사로 나뉘어 사용된다. 전통적으로 ser동사는 ‘영구적 속성’을 나타내는 보어 구문을 유도하며 estar 동사는 ‘일시적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왔다 (Gili Gaya, 1973).

‘Juan is(ESTAR, 3sg) tired.’

예문 (22a)에서 ser 동사는 ‘영구적 속성’을 내포하므로 ‘피곤한 (cansado)’을 의미하는 보어와 함께 사용되지 못한다. 반면에 ‘일시적 상태’를 표현하는 estar 동사와 더불어 사용 가능하다.

전통적 관점에서부터 estar+과거분사 구문은 수동태의 하위형태로 간주되어 왔다. 이는 estar 수동 구문이 ‘결과’ 상 (Asp) 구문에 속하기 때문이다. ser+pp 수동 구문이 ‘행위’를 나타낸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Roca Pons, 1958, Navas Ruiz, 1987).

- (23) a. *El piso ya está comprado por mis hijos.
 ‘The apartment already is(ESTAR, 3sg) bought by my children.’
 a’. El piso fue comprado por mis hijos.
 ‘The apartment was(SER, 3sg) bought by my children’
 (24) El camino está cortado por los manifestantes.
 ‘The path is(ESTAR, 3sg) cut by protesters.’
 (Jiménez, 2004, p.27)

즉, 위 예문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estar+과거분사 구문은 ‘행위’가 아닌 ‘결과’ 상을 표현한다.⁵⁾

이와 같이 수동 접어 se 구문, ser+과거분사, estar+과거분사 수동 구문이 완료상 즉 event 자질을 수반한다는 점에 근거해서, 우리는 스페인어 수동 접어 se가 비인칭 접어 se와 연계성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 구문을 유도하는 ser, estar 동사와 유대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을 가정하고자 한다.

수동 접어 se가 비인칭 se로부터 구별되며 수동 구문을 유도하는 ser, estar 동사와 연계된다는 이러한 관점은 근본적으로 수동 구문의 상적 의미에 관한 De Miguel (2000) 가정에 근거한다. 스페인어 수동 구문과 관련하여 De Miguel (2000) 은 다음과 같이 세 개의 상적 체계를 제안한다. 먼저, 수동 se는, ‘상태’ 혹은 ‘과정’을 수반하든 안하든 간에, 내부 상적 구조에서 ‘성취’ (accomplishment) 단면으로 이루어지는 동사들로부터 형성된다. 다음으로 ser는 그 내부 상적 구조에서 ‘상태’를 취하는 ‘성취’ (accomplishment) 단면을 지나는 동사들로 이루어진다. estar 동사구조는 ‘변화’를 초래하는 ‘상태’를 할당하는 동사들과 더불어 문을 형성한다. De Miguel (2000), Jiménez (2004)에 따르면, ser 수동 구문은 다음의 특징을 지닌다. 먼저, ser 수동 구문을 형성하는 동사 어휘소는 ‘활동’, ‘성취’ 혹은 ‘상태’를 수반하는 event를 나타내야만 한다. 여기서 동사 어휘소가 완료상을 내포함으로써 이러한 수동 구문은 event 구조를 지니게 된다. 즉, ser를 수반하는 수동태 구문의 ‘상태’ (state) 단면은 완료 상태로 해석된다. 근본적으로 수동 술부의 어휘적 상은 ‘변화’ 의미를 지니는 event 구조에 가깝다. 그러나 ser 수동 구문에서 동사 어휘소의 ‘행위’ 방식은 ‘상태’ 혹은 ‘활동’이다. 즉 event를 변화시켜줄 상적 수식어가 필요하다. ser 수동 구문은 ‘변화’를 내포하는 지속적인 event ‘상태’ 단면에 밀접하게 연계된 구조에 해당된다. 즉, 다음 예문 (25)에서 볼 수 있듯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event (punctual)는 수동 구문을 형성하지 못한다.

- (25) *La bomba fue estallada.
 ‘The bomb was(SER, 3sg) exploded.’
 (Jiménez, 2004, p.36)

일반적으로 estar+과거분사 구조는 ‘상태’, ‘활동’, ‘성취’ 동사 어휘소로부터 형성 된다.

- (26) a. La colina está rodeada por un bosque.
 ‘The hill is(ESTAR, 3sg) surrounded by a forest.’
 b. El garaje está vigilado por un guarda,
 ‘The garage is(ESTAR, 3sg) guarded by a guard.’
 c. La puerta está abierta.

5) Navas Ruiz(1987), Gómez Torrego (1988)는 이러한 문장을 스페인어의 또 다른 수동 구문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전치사 por-제한은 구문의 어휘적 상과 연계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The door is(ESTAR, 3sg) open.’
(Jiménez, 2004, p.27)

위 예문 (26a)에서 동사 어휘소는 ‘상태’를 나타내며 (26b)에서는 ‘활동’, 예문 (26c)에서는 ‘성취’를 수반한다. 여기에서 ‘활동’, ‘성취’ 동사 어휘소는 수동 구문이 아니라 결과 구문을 형성하게 된다. 즉 이러한 구문에서 시간 연장이 부적절한 즉 지속적이지 않은 ‘결과’ 상태를 표현한다. 동사 어휘소가 내포하는 ‘상태’는 이전 ‘활동’ 단면에서 유래하므로 여기서 행위자 논항은 por-를 통해 회복될 수 없다. 그러나 몇몇 ‘활동’ 동사 어휘소 (vigilar)나 ‘성취’ 동사 어휘소 (cortar)는 지속적인 ‘상태’로 해석 가능하다.

- (27) a. El garaje está vigilado.
= El garaje está siendo vigilando.
‘The garage is(ESTAR, 3sg) guarded
= the garage is(ESTAR, 3sg) being guarded.’
- b. El garaje está vigilado por un guarda.
‘The garage is(ESTAR, 3sg) guarded by a guard.’
- c. Cisjordania está ocupada por el ejército.
‘Cisjordania is(ESTAR, 3sg) occupied by the army.’
- d. La carretera está cortada por los manifestantes.
‘The road is(ESTAR, 3sg) cut by protesters.’
- (28) Emilio estaba atado al árbol *por los secuestradores.
‘Emilio was(ESTAR, 3sg) tied to the tree by the kidnappers.’
(Jiménez, 2004, p.27)

위 예문 (27)에서 지속적인 ‘상태’ 해석을 허용하는 동사 어휘소들은 por-가 상적 수식어로 등장할 경우 event 의미를 부여하게 됨으로써 수동 구문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예문 (28)에서와 같이 지속적이지 않은 ‘결과’ 상태를 내포하는 경우 수동 구문을 형성하지 못하며 이때 행위자 논항은 por를 통해 회복되지 못한다. 즉 estar+과거분사 구조는 시간적으로 정해진 ‘상태’ (punctual state) 혹은 지속적인 ‘상태’를 내포하는데 여기서 단지 por-를 허용하는 구조의 경우 그리고 완료 제한을 만족하는 구조가 수동 구문으로 정의 된다 (Jiménez, 2004).

- (29) a. La casa está construida.
‘The house is(ESTAR, 3sg) built.’
- b. Cisjordania está ocupada por el ejército.
‘Cisjordania is(ESTAR, 3sg) occupied by the army.’
(Jiménez, 2004, p.27)

예문 (29a)는 수동 의미를 결여하는 결과의미를 내포하는 상적 구조에 해당된다 (Moreno Cabrera, 1998). 반면에 예문 (29b) 구조는 수동 의미를 지니며 수동 구문 속성을 지니는데 여기서 por-는 상적 수식어로 기능을 수행한다. 즉 동사 어휘소는 상태 변화 혹은 event를 나타낸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수동 접어 se 구문에서와 마찬가지로 ser+ 과거분사, estar+과거분사 수동 구문 역시 상적 의미 즉 event 자질을 내포한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대로, ser 수동 구문에서 동사 어휘소의 ‘행위’ 방식은 ‘상태’ 혹은 ‘활동’이므로 event를 변화시켜줄 상적 수식어를 필요로 한다. estar 동사 구문에서 역시 동사 어휘소들은 por-와 같은 상적 수식어를 수반할 때 event 의미를 부여받게 됨으로써 수동 구문을 형성하게 된다. 즉, por-는 상적 수식어 기능을 수행한다. 결과적으로, 수동 접어 se는 상적 의미 즉 event 자질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다른 수동 구문인 ser+과거분사, estar+과거분사 구문과 유대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동 접어 se 구문은 주로 por- 행위자를 결여한다는 점에서 비인칭 se 구문과 공통점을 지님으로써 일반 수동 구문인 ser+과거분사, estar+과거분사 구문으로부터 구별된다. 즉, 다음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수동 접어 se와 비인칭 se는 행위자를 결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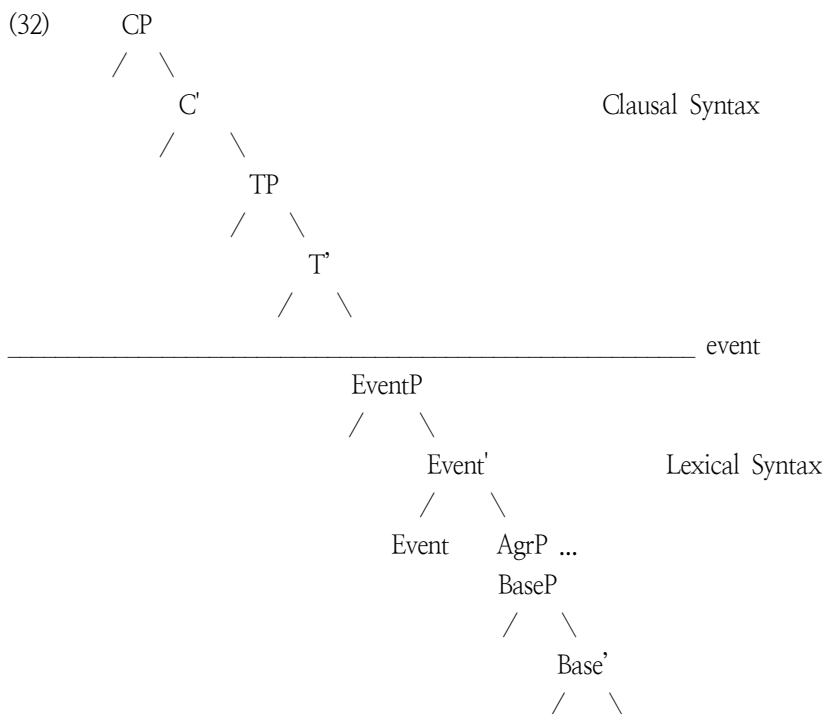
- (30) a. Se vende coche.
 ‘SE sell(3sg) car.’
 b. Se venden coches.
 ‘SE sell(3pl.) cars.’
 c. Se venden coche.
 ‘SE sell(3pl.) car.’

위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스페인어에서 비인칭 se 구문과 마찬가지로 수동접어 se구문은 por-행위자를 결여한다. 즉, ser+과거분사, estar+과거분사 구문이 상적 수식어로서 por- 행위자를 수반함으로써 상적 의미 즉 event 자질을 표현하는 것과 달리 수동 접어 se 구문은 이를 외현적으로 결여함으로써 수동 파생 구조에서 차이를 지닌다. 또한 2.1.에서 살펴본 바대로, 수동 접어 se 구문에서 문법 주어는 반드시 후치해서 나타난다. 문법 주어를 전치할 경우 중간태 구문을 형성함으로써 수동 se 구문으로부터 분명하게 구별된다. 예문 (2)를 재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 (31) a. La puerta se abrió (por sí sola).
 ‘The door SE opened(3sg) (by itself).’
 b. El hielo se fundió.
 ‘The ice SE melted(3sg).’
 (Mendikoetxea, 1990, p.308)

위 예문 (31)에서 볼 수 있듯이, 스페인어 일반 수동 구문인 ser+과거분사, estar+과거분사 구문에서와 달리, 수동 접어 se 구문에서 전치 주어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수동 접어 se가 수반하는 구문적, 의미적 특징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우리는 다음의 가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수동 접어 se 구문의 event 자질 파생과정과 관련하여 우리는 event 자질을 통사적으로 분석하고자 한 Harley (1996)의 Lexical Syntax (L-Syntax) 구조를 이론적 근거로 삼고자 한다. Harley (1996)에 따르면 문에서 event 속성을 내포하는 요소는 L-Syntax를 통해 파생된다. 이와 같은 관점은 기본적으로 어휘 항목의 음운적 실현은 통사적 이동 즉 통사부 작용 이후의 음운화 과정(Spell-Out)에서 알맞은 분지점에 삽입된다는 Halle & Marantz (1994) 분석에 기초한다. 이러한 분석은 근본적으로 L-Syntax와 Clausal Syntax(C-Syntax)간에 (Hale & Keyser, 1993 용어로) 차이를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Harley (1996)가 제안하는 L-Syntax 구조는 다음과 같다.



Harley(1996) 관점 하에서 볼 때, 술부는 EventP의 출현 혹은 결어로 구분된다. 여기서 Event 핵의 의미적 해석은 구조적으로 해석된다. 즉, EventP 지정어 위치에 논항이 나타나는지 혹은 결여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EventP가 자신의 지정어 자리에 논항을 수반하게 되면 Event 핵은 ‘원인’ (CAUSE)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정어 위치에 논항이 결여될 경우에 Event 핵은 ‘-로 되다/ 발생’ (BECOME/HAPPEN)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L-Syntax에서 EventP가 동사 의미에 상적 의미를 부여한다. Harley (1996) 구조에서 동사가 행위자를 결여할 때 L-Syntax에서 Event 지정어 위치는 설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Harley (1996)의 L-Syntax 구조에 근거하여 우리는 event 자질을 내포하는 스페인어 수동 접어 se가 Event 핵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자 한다. 즉, 행위자를 수반하는 사역 동사의 경우 EventP 지정어 위치에 행위자 즉 외부 논항을 수반하게 되지만 수동 접어 se 구문의 경우 이를 결여한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구조 내에서 event 핵에 위치하는 수동 접어 se는 Spell-Out 과정에서 접어 se로 발현된다. 즉, 행위자를 결여하는 수동 접어 se는 Harley (1996)의 L-Syntax 과정을 거쳐 음성적으로 발현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상적 의미 즉 event 자질을 동사에 부여하게 된다.⁶⁾

이러한 ‘원인’ 의미를 내포하는 event 핵과 이를 결여하는 event 핵의 개념은 Jacobsen (1992)에서 제시하는 다음 일본어 자료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 (33) a. kir-e-ru.
 ‘(be) cut.’
 b. kir-Ø-ru.
 ‘cut.’

여기서, ‘원인’ 의미를 결여하는 event 핵 (noncausative event head)은 예문 (33a)에서 음성적으로 발현되어 출현하는 반면 ‘원인’ event 핵 (causative event head)은 예문 (33b)에서 나타난다. 즉, 이러한 구조에서 event 핵은 형태론적으로 표면화된다. 우리의 관점 하에서 볼 때, 스페인어 수동 접어 se는 L-Syntax에서 event 핵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형태론적으로 동사와 더불어 event 구문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파생되므로 비인칭 se 구문과 달리 수동 접어 se 구문에서는 접어와 동사 간에 어떠한 요소도 삽입될 수 없다. 2.2.에서 살펴본 바대로, 비인칭 se와 수동 접어 se 구문의 중요한 차이점은 간접 목적격 대명사 les가 비인칭 se와 동사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반면 수동 접어 se와 동사 사이에는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이다. 예문 (6)을 재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 (34) a. SE les vende libros a los chicos.
 ‘SE to-them(DAT) sell(3sg) books to the boys.’
 b. *SE les venden libros a los chicos.
 ‘SE to-them(DAT) sell(3pl) books to the boys.’
 (Mendikoetxea, 1990, p.319)

우리의 분석 내에서 볼 때, 이러한 현상은 수동 접어 se가 event 핵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동사에 event 자질을 부여해주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⁷⁾

이와 같이 수동 접어 se는 상적 의미 즉 event 자질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ser+과거분사, estar+과거분사 수동 구문과 연계성을 설정하지만 por- 행위자를 결여한다는 점에서 언급한 수동 구문으로부터 구별된다. 이러한 수동 접어 구문은 접어 se와 동사 사이에 간접 목적격 대명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또한 비인칭 se 구문으로부터 구별된다. 우리의 분석 내에서 볼 때, 상적 의미 즉 event 자질을 내포하는 수동 접어 se는 Harley (1996)의 L-Syntax 구조를 통해 파생되며 이러한 구조에서 접어 se는 event 핵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6) 본 논문에서는 동사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이러한 수동 접어 se 구문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수동 구문을 유도하는 ser+과거분사, estar+과거분사 구문 분석은 다음 연구를 통해 제시될 것을 기대한다.

7)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으로 수동접어 se 구문이 다른 수동 구문과 마찬가지로 상적 자질 즉 event 자질을 내포한 채로 파생된다는 가정 하에 Harley (1996)의 L-Syntax 구조를 이론적 근거로 삼고 있다. 즉, Jacobsen (1992) 자료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수동 의미를 지니는 요소가 event 자질을 내포함으로써 형태론적으로 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페인어 수동 접어 se 역시 event 요소로서 형태론적으로 출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수동 구문 형태의 의미적, 통사적 특징은 다음 한국어 자료를 통해 또한 살펴볼 수 있다.

실제로 한국어 피동 구문 역시 접어, 조동사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수동 구문을 형성한다. 한국어에서 능동문의 주어와 목적어 위치가 바뀔으로써 피동자가 주어 위치로 이동하는 구문을 피동문으로 정의한다 (우인혜, 1994). 이러한 한국어의 피동문에 도입되는 피동의 범주에 관해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 (성광수, 1976, 임흥빈, 1988, 이상억, 1999). 한국어 피동 구문의 피동범주에는 피동 접미사인 '이, 리, 히, 기'와 조동사인 '되다, -지다'가 있다. 이외에도 '받다, 당하다'와 같이 동사 어휘 자체가 피동 의미를 수반하는 개별 동사가 있다. 먼저, '이, 리, 히, 기'와 같은 접미사가 피동 구문을 유도하는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5) a. 영희가 철수를 잡았다.
b. 철수가 영희한테 잡혔다.
- (36) a. 철수가 그 문을 닫았다.
b. 문이 철수에 의해 닫혔다.
- (37) a. 영희가 철수의 돈을 빼앗았다.
b. 영희가 철수에게 돈을 빼앗겼다.
- (38) a. 모기가 아이를 물었다.
b. 아이가 모기에게 물렸다.
- (39) a. 철수가 그 문제를 풀었다.
b. 그 문제는 철수에 의해 풀렸다.

(남수경, 2005, pp. 80-89)

이러한 피동 구문에서 접어 형태인 '이', '히', '리', '기' 등은 동사에 부가됨으로써 피동 의미를 표현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동 구문은 보다 다양한 형태로 표현 가능하다.

- (40) a. 영희가 철수의 손을 잡았다.
b. 철수가 영희에게 손이 잡혔다.
c. 철수가 영희에게 손을 잡혔다.

(남수경, 2005, pp. 80)

위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어 피동 구문의 경우 '잡다'라는 동사가 동일하게 사용됐지만, 피동주 '손'이 격조사 '이/가' 혹은 '을/를'과 결합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피동 구문에서 피동주가 주격으로 나타나는데 이 경우 목적격 조사 '을/를'을 수반한다. 심지어 다음 구문에서는 목적격 조사만이 가능하다.

- (41) a. *매리가 존한테 돈이 빼앗겼다.
b. 매리가 존한테 돈을 빼앗겼다.

(남수경, 2005, pp. 80)

이러한 수동 구문에서 나타나는 대격 조사와 관련하여 임흥빈 (1998)은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에 남게 된 것이 아니라 피동화한 이후에 피동의 논리에 의해 생성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즉, 언급한 피동 구문의 대격 조사가 통사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의미론적 존재, 구체적으로 주제화의 '을/를'로 정의된다.

다음으로 조동사인 '-지다'로 이루어지는 피동 구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42) a. 영수가 나무로 집을 만들었다.
b. 집이 나무로 만들어졌다.
- (43) a. 영수가 쓰레기를 길에 버렸다.
b. 쓰레기가 길에 버려졌다.

(연재훈, 2011, p.145)

연재훈 (2011)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피동 조동사 ‘-지다’의 핵심적 의미는 ‘상태의 변화에 해당된다. 한국어의 많은 타 동사가 이러한 피동 조동사 ‘-지다’를 통해 피동화 된다. 이를 통해 타동사의 목적어는 ‘-지다’ 합성 동사의 주어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이외에도 조동사 ‘-지다’는 상태 동사 즉 형용사나 자동사와도 결합함으로써 피동 구문을 유도한다.

- (44) a. 그 물이 맑다.
- b. 그 물이 맑아진다.
- (45) a. 그 방이 따뜻하다.
- b. 그 방이 따뜻해진다.
- (46) a. 날씨가 흐리다.
- b. 날씨가 흐려진다.

(연재훈, 2011, p.142)

이와 같이 조동사 ‘-지다’가 상태 동사인 형용사에 결합될 경우에 역시 ‘상태의 변화’를 표현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동사의 주어 자리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한국어 자료를 통해 우리는 수동 구문은 의미적, 통사적으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수동 구문에 제한되어 사용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스페인어에서 수동 접어 se 구문이 ser 동사 구문, estar 동사 구문에 연계됨으로써 수동 구문 상적 자질을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어 피동 구문에서도 능동 구문으로부터 구별되는 새로운 통사적, 의미적 특징이 부여된다. 형태론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어의 접미사 ‘이’, ‘히’, ‘리’, ‘기’와 같은 문법 요소가 피동 구문을 유도하는 것과 같이 스페인어에서도 수동 접어 se가 동사와 더불어 수동 구문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한국어의 ‘되다’ ‘지다’와 같은 조동사가 피동 구문을 이루는 것처럼 스페인어에서 ser, estar 동사 등이 수동 구문을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수동 구문은 의미적, 통사적 특징에 따라 언어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통해 표현된다.

4. 결론

스페인어의 수동 접어 se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가정들을 제안했다. 먼저, 수동 접어 se가 비인칭 se와 연계 되는 것이 아니라 ser+과거분사, estar+과거분사 수동 구문과 유대관계를 내포한다는 점을 가정했다.

수동 접어 se 구문은 행위자를 결여한다는 점에서 비인칭 se 구문과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비인칭 se 구문에서와 달리 수동 접어 se와 동사 사이에 간접 목적격 대명사와 같은 다른 문법적 요소들의 삽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지닌다. 또한 비인칭 se 구문에서 명사구는 반드시 목적격으로 격표시된다는 점 역시 수동 접어 구문과 차이를 보인다. 이외에도 수동 접어 se 구문에서 참여자가 거의 ‘무생물’인 반면 비인칭 se 구문에서는 ‘인간’ 참여자가 출현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이러한 구문적 차이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수동 접어 se가 상적 의미 즉 event 자질 측면에서 ser+과거분사, estar+과거분사 수동 구문에 연계된다는 점을 가정했다. 수동 구문의 상적 의미에 관한 De Miguel (2000) 개념에 근거하여 수동 접어 se 구문, ser+과거분사, estar+과거분사 구문이 상적 자질을 내포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수동 접어 se 구문은 일반적으로 por- 행위자를 결여한다는 점에서 ser+과거분사, estar+과거분사 수동 구문으로부터 구별된다. 즉, 일반 수동 구문에서 por- 행위자가 상적 수식어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수동 접어 se 구문에서는 언급한 행위자가 주로 출현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상적 의미 즉 event 자질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수동 접어 se 구문은 ser+과거분사, estar+과거분사 수동 구문과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점에 근거해서, 본 연구에서는 수동 접어 se는 상적 의미 즉 event 자질을 내포함으로써 Harley (1996)의 L-Syntax 과정을 통해 파생된다는 점을 가정했다. 이러한 관점 내에서, 수동 접어 se는 event 핵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동사에 event 자질을 부여해준다.

참고문헌

남수경. (2005). 조사 ‘을/를’이 나타나는 피동문에 대하여. *언어연구*, 41(1), 79-99.

- 성광수. (1976). 국어 간접 피동에 대하여-피동 조동사 '지(다)'를 중심으로. *문법연구* 3, 312-323.
- 연재훈. (2011). *한국어 구문 유형론*. 파주: 태학사.
- 우인혜. (1994). 접미 피동법의 일고찰. *한국학논집*, 25, 273-294.
- 이상억. (1999). *국어의 사동, 피동 구문 연구*. 서울: 집문당.
- 임흥빈. (1988). 국어 문법의 심층 III, 서울: 태학사.
- Alarcos Llorach, E. (1970). *Estudios de Gramática funcional del Español*, Madrid: Editorial Grados.
- Belletti, A. (1982). Morphological passive and Pro-drop: The impersonal Construction in Italian, *Journal of Linguistic Research*, 4, 1-33.
- Blanca, L. (2007). La voz pasiva en español: diatriba gramatical, *Escritos Revista del Centro de Ciencias del Lenguaje*, 35-36, 41-60.
- Bosque, I. (1987). Clases de sujetos tácitos, In J. Borrego Nieto, J. J. Gómez Asencio & L. Santos Río (eds.): *Philologica II. Homenaje a D. Antonio Llorente* (pp. 91-111), Salamanca: Universidad de Salamanca.
- Brown, C. B. (1930). The passive as applied to persons in the Primera Crónica General, *Papers from the Modern Language Association*, 14, 454-467.
- Campos, H. (1989). Impersonal Passive SE in Spanish, *Linguisticae Investigationes*, 13(1), 1-21.
- Cinque, G. (1988). On si constructions and the theory of Arb, *LI*, 19(4), 521-581.
- Comrie, B. (1981). Aspect and Voice, In P. Tedeschi & A. Zaenen (eds.): *Syntax and semantics, 14: Tense and aspect* (pp. 65-78), New York: Seminar Press.
- De Miguel, E. (2000). Relaciones tra il lessico e la sintassi: Classi aspettuuali di verbi ed il pasivo spagnolo, *Studi italiani di linguistica teorica e applicata*, 2, 201-218.
- Elvira, J. (2000). Sobre el desarrollo de la pasiva refleja en español medieval, *Actas del V Congreso Internacional de Historia de la Lengua Española*, 1, 597-608.
- Ghio, E., Cornú, S., & Mónaco, F. (2017). Del latín al español, Procesos de (des)agentivación y gramaticalización de las construcciones pasivas e impersonales en crónicas medievales y renacentistas, *Texturas*, 16, 141-160.
- Gili Gaya, S. (1973). *Curso Superior de Sintaxis española*, Barcelona: Bibliograf, S. A.
- Gómez Torrego, L. (1988). *Pefífrasis verbales*, Madrid: Arco Libros.
- Guéron, J. (1991). Le clitique SE et la grammaire des pronoms indéfinis, In J. Guéron & J. Y. Pollock (eds.): *Grammaire générative et syntaxe comparée*, Paris: Editions du CNRS, 191-213.
- Hale, K., & Keyser, J. (1993). On Argument Structure and the Lexical Expression of Syntactic Relations, In K. Hale & J. Keyser (eds.): *The view from Building 20* (pp. 53-109), Cambridge: MIT Press.
- Halle, M., & Marantz, A. (1994). Distributed Morphology, In K. Hale & J. Keyser (eds.): *The view from Building 20* (pp. 53-109), Cambridge: MIT Press.
- Harley, H. (1996). Events, Agents and the Interpretation of VP-shells, ms., MIT.
- Hernández Alonso, C. (1979). *Sintaxis Española*, Valladolid: Ediciones de César Alonso.
- Jiménez, C. (2004). Construcciones pasivas con ESTAR, *ELUA*, 18, 21-44.
- Maldonado, R. (1992). Middle Voice: the case of Spanish S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 Mendikoetxea, A. (1990). On the syntax of constructions with arb SE in Spanish, *ASJU*, 24(1), 307-328.
- Monge, F. (1955). Las frases pronominales de sentido impersonal en español, *Archivo de filología aragonesa*, 7, 7-102.
- Moreno Cabrera, J.C. (1998). Agente y paciente por activa y por pasiva, In J. de Dios Luque Durán and A. Pamies Bertrán (eds.): *Estudios de tipología lingüística* (pp. 79-106), Granada: Granada Lingvistica.
- Navas Ruíz, R. (1987). *Usos de SER y ESTAR*, Madrid: Sociedad Española de Librería.
- Otero, C. P. (1986). Arbitrary Subjects in Finite Clauses, In I. Bordelois, H. Contreras & K. Zagona (eds.), *Generative studies in Spanish syntax* (pp. 81-110), Dordrecht: Foris.
- Pedersen, J. (2005). The Spanish impersonal SE-construction, constructional variation and change, *Constructions*, 1,

서소영

1-49.

RAE. (1973). *Esbozo de una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Calpe.

Richer, E. (1909). Zur Entwicklung des reflexiven Ausdrucks in Romanischen, *Zeitschrift für romanische philologie*, 33, 135-142.

Roca Pons, J. (1958). *Perífrasis verbales del español*, Madrid: CSIC.

Vallduvi, E. (1990). *The informational component*, New York: Garland.

서소영

5489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스페인, 중남미학과 교수

전화번호: (063)270-3279

전자우편: soyungseo@chonbuk.ac.kr

Received on April 17, 2020

Revised version received on July 26, 2020

Accepted on July 29, 2020